

文, 英 G7 참석...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 되나

내일 영국서 G7 정상회의

13~17일 오스트리아·스페인 방문
文 대통령 “외교지평 확대” 의지에
양자·다자간 회담 가능성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사실상 단절된 한·일 관계 회복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자 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까지 이뤄진 적이 있는 데다, 문 대통령도 한·일 관계 회복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9일 “문 대통령은 영국 총리 초청으로 11~13일 까지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G7 정상회의 이후)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스페인 국왕 초청으로 오스트리아, 스페인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고 문 대통령의 G7 일정을 브리핑했다.

이어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12~13일 개최되는 확대회의의 3개 세션에 참석해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경험에 대해 공유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예정이고, 아울러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한·미·일 회담이 이뤄질지에 대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이 많지 않고, 수행원이 아주 적은 가운데 세르파 1인만 수행해 회의를 많이 개최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정식으로 회의를 예정하지 않아도 정상들이 서서, 또는 소파에 앉아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서도 “한·일 정상회담이나 회동에 대해 현재로서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다. 우리는 일본 측과 대화에 항상 열려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상 외교 일정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원론적인 답변만 한 셈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다자 회의 기간 다양한 국가와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어서 G7 회의 기간 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단독 회담을 가질지 주목된다. 외교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이 스가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포함한 한·미·일 정상회담도 성사될 수 있다.

G7 일정 가운데 한·일 혹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문 대통령의 의지다. 전날(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G7 참석과 관련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다자 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일 뿐 아니라 주요국과 활발한 양자 정상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지난 2001년 일본 도쿄 신오쿠보역 선로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한 청년 이수현에 대해 언급한 뒤 “청년 이수현의 희생은 언젠가 한·일 양국의 협력의 정신으로 부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이나 남북 관계가 언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

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 처리한 것도 G7 일정 가운데 다자 혹은 양자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로 꼽힌다. 한·일 관계 악화 원인으로 꼽히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 인정’ 판결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국제법상 금반언(estoppel) 원칙’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한다”며 사실상 패소판결했다.

다만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도 전날(8일) 서울중앙지법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결정이 G7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판결이라는 해석에 대해 “판결은 판결이고, 한일 간 외교적 소통은 외교적 소통”이라고 일축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백신접종 속도... 세계은행, 올 세계 성장률 5.6% 전망

5달 새 경제성장률 1.5%p 상향조정
美 6.8%, 中 8.5%, 유럽 4.2% 전망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5.6%로 전망했다. 지난 1월 4.1%로 전망한 것과 비교해 5달 새 성장률을 1.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저금리와 대규모 재정 투입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경제 회복세를 앞당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WB는 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973년 6.6% 이후 48년만에 가장 높다.

특히, 세계 경제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3.5%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전 세계가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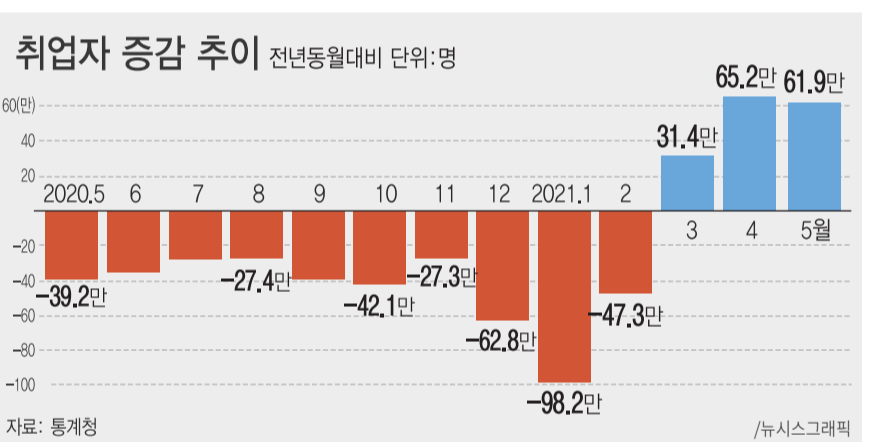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6.8%로 지난 1월(3.5%)보다 3.3%포인트 올랐다. WB는 저금리와 대규모 재정 지출, 공격적인 백신 접종

을 반등 요인으로 봤다.

중국을 올해 8.5% 성장을 예상했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도 2.3%의 플러스 성장을 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유럽 국가의 경우 지난해 -6.2% 성장에서 올해 4.2% 성장으로 크게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도 지난해 -4.7% 성장에서 올해 2.9%로 끌어올렸다.

다만 WB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회복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세종=원승일 기자



5월 취업자수 62만명 증가 코로나 기저효과 3개월째 ↑

통계청, 취업자 수 2755만명
보건업 등 늘고 도·소매업 줄어

지난달 취업자가 62만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근 경기회복세에 따른 수출 호조와 소비 확대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취업자가 크게 줄었던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종의 고용 부진은 지속됐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만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작년 3월(-19만5000명)부터 1년 간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3월(31만4000명)들어 처음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후 4월(65만2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수출 호조와 소비확대, 거리두기 단계 유지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취업자 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4만1000명)에

서 크게 늘었고, 건설업(13만2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0만1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소매업(-13만6000명),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4만5000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3만9000명) 등은 줄었다.

취업자 수 증가에 힘입어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2%로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올랐다. 특히, 청년층인 15~29세 고용률은 44.4%로 같은 달 기준 2005년(45.5%) 이후 가장 높았다.

실업자 수는 114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명 줄었다.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6000명 줄어든 1635만1000명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달 고용시장 상황은 일자리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내용 측면에서도 개선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고용동향 발표 후 “코로나19 직전인 작년 2월과 비교해 80% 이상 일자리가 회복됐다”고 밝혔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온·오프라인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200여개 흥삼브랜드 + 2만여개 인기상품

복지물과 웹카다로그를 통해 남녀누구나 평생 판매 수익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사업

25년 역사 브레인TV 방송국 소유 핫터그룹

(주)핫터라이프 T. 070-7204-4515